

##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추가설명자료

8.31(금)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김현미 장관의 어제 발언은,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,
  - 다만, 최근의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임
- 현재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“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”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,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음
  - 아울러, 향후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,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계획임

2018.9.1 대변인